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고용포럼 개최”

- 국내외 전문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동반성장 전략 토론 -

-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노동부 등의 후원으로 최근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반 성장 전략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고용포럼을 6.3~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국제고용포럼에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해외 석학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다.
- 6.3 오전에는 Oded Galor(Brown University) 교수가 ‘다양성, 인적자본, 경제성장’, Christopher Pissarides(London School of Economics) 교수가 ‘복지국가의 고용성과’, Eric Hanushek(Stanford University) 교수가 ‘인공지능, 제도와 경제적 성과’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한다.
- 이 날 오후에는 거시경제, 산업, 교육인적자원개발, 노동시장 정책과 일자리창출의 관계에 대하여 국내 분야별 전문가 28명이 세션별로 나누어 12개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 ▲ 제1-1 트랙(거시경제정책과 고용)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의 구현방안’ 등
 - ▲ 제1-2 트랙(노동시장정책과 고용) : 배진한(충남대) 교수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와 정책방향’ 등
 - ▲ 제2-1 트랙(산업정책과 고용) : 조준모(성균관대) 교수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 제2-2 트랙(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고용) : 김진영(건국대) 교수의 ‘한국의 고등교육시장과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등

- 포럼 2일째인 6.4 오전에는 Gerhard Bosch(Universitat Duisburg-Essen) 교수가 ‘유럽 고용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 Günther Schmid(Free University of Berlin, Labou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WZB)) 교수가 ‘독일고용의 역학관계 : 하르츠 개혁의 교훈’, Paul Swaim(OECD) 실장이 ‘경제 세계화시대의 고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성공적 고용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 이 날 오후에는 작업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세션에서 심상완(창원대) 교수의 ‘작업장 혁신과 고용’과 3개의 사업장 사례가 발표되고, 이어 NGO,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열린다.
- 국제 고용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 국제적인 고용전략의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관 분야 정책과의 협조(cooperation)와 조정(coordination)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국제고용포럼에 앞서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08.5월 한국경제학회 회원(5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연관관계에 대해 74.6%의 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 * 이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지목하고 있고(36.8%), 차

순위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21.4%)을 지적하고 있다.

-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노동 정책과 함께 가장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분야(37.3%), 교육 및 훈련정책 분야(30.3%)라고 응답했다.
- 또한, 관련 정책을 기획·수립·실행하는데 있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노동정책 이외에도 다른 분야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의 관련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정책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 모든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5%를 차지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어떤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확대(45.6%)를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적하고, 그 뒤를 이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26.5%)을 선택했다.

붙임 : 1. 국제고용포럼 2008 개요 1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전문가 실태조사 결과 1부.

<붙임 1>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고용포럼 개요

□ 세미나 개요

- 주제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반 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동반 달성되기 위한 여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학자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
 - OECD, European Commission 등 국제기구의 고용전략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계적인 고용전략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신고용전략을 모색
 - 작업장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NGO 등 경제주체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애로사항 등 의견을 포럼을 통해 집약하여 향후 고용정책에 반영
- 일시 : 2008. 6. 3(화) - 6. 4(수) (2일간)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 국제홀
- 참석(초청)대상 : 약 200여명
 - Oded Galor(Brown University), Christopher Pissarides(London School of Economics), Eric Hanushek(Stanford University), Gerhard Bosch (Universitat Duisburg-Essen), Günther Schmid(Labour Market Policy and Employmen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WZB)), Paul Swaim(OECD) 외국인사(6명), 한국경제학회 회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관계자 등

□ 주요 일정 개요

일자	6.3(화)	6.4(수)
오전	개회식 개회사 : 이종원 한국경제학회장 축사 : 이영희 노동부 장관 환영사 :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사회 : 양수길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해외 석학 특별 강연 1. Oded Galor(다양성, 인적자본, 경제성장) 2. Christopher A. Pissarides(복지국가의 고용성과) 3. Eric A. Hanushek(인지기술, 제도와 경제적 결과)	각국의 고용전략 발표 사회: 윤용만 인천대 교수 1. Gerhard Bosch(유럽 고용모델에 대한 사례연구) 2. Günther Schmid(독일 고용의 역학관계: 하르츠 개혁의 교훈) 3. Paul Swaim(경제 세계화시대의 고용전략: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지향)
	(10:00 ~ 12:00) (* 등록은 9:30부터, 포럼 10:00 시작)	
오후	거시경제정책과 고용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작업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사례 발표 및 토론
	(13:30~15:30)	
	산업정책과 고용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사례 발표 및 토론
	(16:00~18:00)	

□ 외국 석학들과의 언론 세션

- 기존 세션과 별도로 6.3(13:30~15:30)과 6.4(13:30~15:30)에 각각 외국 강연자, 언론사 기자, 관련 학자들의 **국제고용포럼 Workshop**을 언론 세션으로 개최할 계획
- 언론세션에서는 오전에 전개된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사항을 강연자들이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 (동시통역 제공)

⇒ 이 내용은 참여한 언론사에서 정리하여 기사화하기를 희망함.

□ 양일간 오후 세션 세부 일정

< 6. 3(화) 오후 세션 >

거시경제정책 세션			주제
사회자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발표자 1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의 구현 방안
발표자 2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성장과일자리창출: 한국경제의 고용증가율감소는 '고용없는 성장' 때문인가?
발표자 3	양준모	연세대학교	거시경제정책과 고용: 현황과 과제

산업정책 세션			주제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교수		
발표자 1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자 2	김종일	동국대학교	구조변화 측면에서 본 한국의 고용문제와 정책대응 방향
발표자 3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아젠다

노동시장정책 세션			주제
사회자	송위섭 아주대 교수		
발표자 1	배진한	충남대학교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와 정책방향
발표자 2	이인재	인천대학교	고용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시론
발표자 3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방안

교육·인적자원개발 세션			주제
사회자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		
발표자 1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직무 및 교육 불일치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방향
발표자 2	김진영	건국대학교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과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실증적 검토
발표자 3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이행

< 6. 4(수) 오후 세션 >

작업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세션			주제
사회자	정인수 뉴패러다임 센터 소장		
발표자 1	심상완	창원대학교	작업장 혁신과 고용
발표자 2	이영호	뉴패러다임 센터	(주)KTP 사례
발표자 3	이성웅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사례
발표자 4	변상혁	뉴패러다임 센터	(주)삼정피앤에이 사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사례발표 및 토론			주제
사회자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발표자 1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발표자 2	한명섭	SK 행복나눔재단	행복도시락,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3	홍상식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팀	‘다솜이재단’의 성과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자 4	김창환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자 5	양복완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의 고용여건과 일자리 창출대책
발표자 6	김종문	한국철강협회	인적자원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발표자 7	김영훈	한국조선협회	조선업 현황과 일자리 창출

※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02-782-3832(김미경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연구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

-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경제학과 교수, 경제 관련 연구자) 1500명을 조사한 결과 574명의 경제 전문가가 응답 (2008년 5월 기준)
- 경제 전문가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연관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견해가 74.6%로 가장 지배적인 의견으로 밝혀졌음.
- ‘경제성장률이 낮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는 17.2%,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이 전혀 관련이 없는 ‘고용없는 성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견해가 7.8%로 조사됨.

[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관계							
사 례 수	경제성장률이 낮아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음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충분한 일자리창출은 어려움		전혀 관련이 없는 고용없는 성장 상황으로 가고 있음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99	17.2	428	74.6	45	7.8	2

- 이러한 응답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표] 노동분야의 심각한 문제점 1순위

사 례 수		노동분야의 심각한 문제점									
		낮은 고용률		노동시장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력수급의 불일치		저출산 고령화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104	18.1	211	36.8	169	29.4	65	11.3	25	4.4

[표] 노동분야의 심각한 문제점 2순위

노동분야의 심각한 문제점													
사 례 수	낮은 고용률		노동시장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의 경직성		인력수급의 불일치		저출산 고령화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70	12.2	137	23.9	123	21.4	135	23.5	100	17.4	9	1.6

-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지목하고 있고(36.8%), 차순위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21.4%)을 지적하고 있음.
- 2순위 선택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23.9%), 차순위로는 ‘인력수급의 불일치’(23.5%)를 문제점으로 지적
- 따라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인력수급의 원활화(교육훈련 체계의 향상)의 순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함.

[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

사 례 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											
		정책 추진, 협력 체계 취약		재원배분 규모 부족		단기적, 임시 일자리 창출에 과도한 재원배분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정부의 과도한 직접 일자리 창출 개입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68	11.8	20	3.5	283	49.3	62	10.8	133	23.2	8	1.4

- 과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 창출에 과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49.3%) 했음.
- 따라서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은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구하는 한편, 보다 상시적이고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정책분야

사 례 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정책분야													
		거시경제		산업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경쟁촉진		교육 및 훈련		복지 및 사회안전망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42	7.3	214	37.3	32	5.6	60	10.5	174	30.3	50	8.7	2	0.3

-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노동정책과 함께 가장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분야(37.3%), 교육 및 훈련정책 분야(30.3%)라고 응답했음.
- 결국 인력수요의 확대 측면에서는 산업육성과 그것을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인력공급의 질적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및 훈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표] 정책 기획, 수립, 실행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정도

정책 기획, 수립, 실행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정도											
사 례 수	모두 정책 수립시 고려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고려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때만 고려		고용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201	35.0	218	38.0	125	21.8	23	4.0	7	1.2

- 관련 정책을 기획, 수립, 실행하는데 있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정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요성 내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정책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 모든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나와, 다른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표] 일자리 증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 1순위

일자리 증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													
사 례 수	투자확대		직접적인 지원 강화		창업지원 과 중소기업 육성		특정 산업 육성		연구 개발 확대 및 신기술 개발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262	45.6	74	12.9	152	26.5	61	10.6	24	4.2	1	0.2

[표] 일자리 증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 2순위

		일자리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사 례 수		투자확대		직접적인 지원 강화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특정 산업 육성		연구 개발 확대 및 신기술 개발		잘모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85	14.8	83	14.5	179	31.2	104	18.1	109	19.0	14	2.4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어떤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확대(45.6%)를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적하고, 그 뒤를 이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26.5%)을 선택했음.
- 2순위에서는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이 가장 높은 31.2%, 투자확대가 14.8%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적됨.

[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 1순위

사 례 수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 1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시스템 강화		해외일자 리 개척 및 해외 취업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		직업능력개 발 시스템 개편		여성, 고령자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고용관련규 제 개혁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89	15.5	55	9.6	114	19.9	227	39.5	19	3.3	62	10.8	8	1.4

[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 2순위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 2																	
사 례 수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시스템 강화		해외일자 리 개척 및 해외 취업 지원		취약계층 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개편		여성, 고령자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고용관련 규제 개혁		기타		잘모 림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74	88	15.3	57	9.9	84	14.6	156	27.2	81	14.1	95	16.6	5	0.9	8

-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 중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해서는 1순위에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개편이 39.5%로 노동공급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가 19.9%, 공공민간고용서비스 시스템 강화가 15.5%의 순서로 나타났음.
- 2순위의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고용관련 규제 개혁이 16.6%로 1순위 조사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02-780-9039(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